



흙의 무한한 가능성 모색에 도전

'흙으로 지은 옷' 작품 신선한 충격으로

이달에 기자가 만난 작가는 '흙의 무한한 가능성 모색'에 도전장을 던진 도예가 김진경(32)씨이다.

96년 4월, 인사갤러리와 97년 11월, 조성희화랑에서 각각 열린 개인전에서 기자가 보았던 그의 작품세계는 도예가 연상시키는 일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험적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꽤 신선한 이미지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일구육공의 anti-craft, antic-raft 전', '숨은여성찾기 전', '흙의 시나위전', '서울현대도예 비엔날레' 등 그간 참여한 30여회의 그룹전에서 발표한 작품들 역시 성실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특히 97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흙으로 지은 옷' 작업은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대표작으로서 '편견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의 작업방법의 특징은 수백개의 작은 조각(Unit)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가 사용하는 백색의 도자조각들은 원형,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뿔형 등의 형태로 가느다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다.〈사진 3, 4〉

그것들은 다시 굽은 철사나 파이프로 지탱되어 '옷'이 되기도 하고 천정과 벽면에 설치되기도 한다.

철골구조물과 연결된 Unit들 사이에 생겨난 공간과 전체적 형태의 공간은 긴장감과 율동감을 느끼게 하며 금방이라도 훌날리거나 주위 환

도예가 김진경

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움직임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빛에 의해 생겨나는 그림자는 바닥과 벽면에서 마치 먹물로 그린 그림처럼 작품과 함께 공간구성역할을 한다.〈사진 1〉

결과보다 표현의 한계 뛰어 넘으려는 노력

"그 작업과정에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김진경씨는 이화여대 도예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S.U.N.Y New Paltz)에서 도예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 연신내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10여회의 그룹전에 참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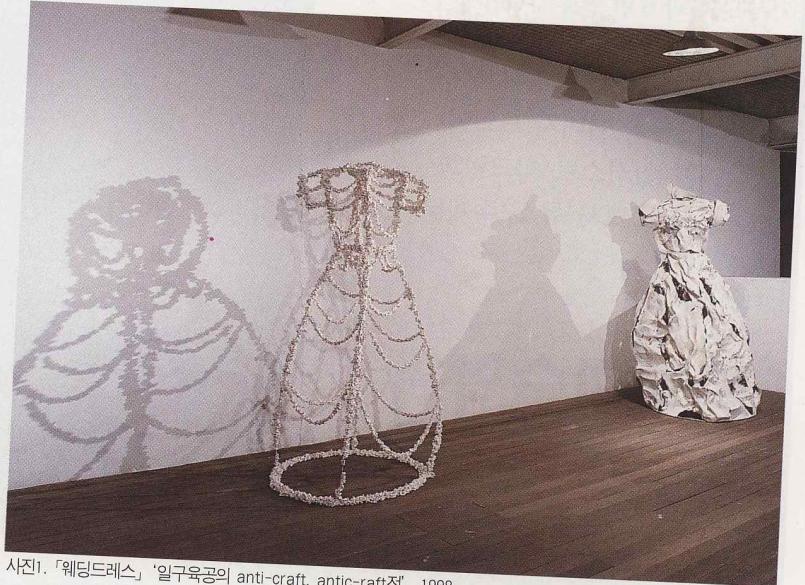


사진1. 「웨딩드레스」 '일구육공의 anti-craft, antic-raft 전' 1998.

펼쳐가고 있는 그는 기자가 찾아 갔을 때도 작업하느라 여념 없이 바쁜 모습이다.

“전 작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흙작업의 특성상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작업과정이 즐거워야 저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표현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정 즉, 내면을 강조 하는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김진경씨는 첫번째 개인전(사진 2)에서 신선한 이미지로 주목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실상 자신은 전시 이후 깊은 ‘갈등’에 빠진다. 스스로가 내면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다는 생각에 골똘하면서 작업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작가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으로 덮어두기에는 당시 그에게 너무나 큰 벼이었다고 술회한다. ‘이것은 창작이 아니다’, ‘차라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다. 그것은 ‘창작의 고통’ 이후에 고뇌였다.

몇 개월간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럼무렵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흙·불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국내외 도예가, 조각가 수백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는데, 한여름 짐통더위속에서 10여일간을 함께 하면서 김진경씨는 ‘그 가운데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보다 10여년 이상을 작업해 온 선배작가들이 땀으로 뒤틀어진 모습으로 흙과 씨름하는 광경은 그에게 명쾌한 해답을 찾아주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예라는 편협함에서 뛰어나와 흙의 특성 탈피, 도자 갖지 않은 도자 선보여

이후 그는 보다 솔직하게 흙을 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작업관은 ‘감당할 수 있는 작업’이다. 소위 정신없이 유행을 쫓거나, 자신도 모르는 작업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작업관은 최근 ‘옷’ 작업에서도 엿볼 수



사진3. 「Don't touch me!」 「술은 여성 찾기전」 1998.

있다. 인간에 대한 성격, 신분, 심리적 상태 등을 우회적 표현으로 ‘옷’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여성’로 일관되어 왔다. 그는 우선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자로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편하고 솔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즉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작업에서부터 영역을 넓혀 갈 때 자신도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창조’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김진경씨의 근작, ‘흙으로 빚은 옷’은 편견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그의 작업은 도예라는 장르가 금근고 있었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도예의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항아리와 현대적인 감각에서의 조형작업이다. 물론 여기

에서 조형이란 과거에 비례와 규칙을 중요시했던 수치로써의 조형이 아니라 추상에서와 같이 압축된 의미, 또는 내면의 속성 등을 표현하는 조형을 말한다. 이러한 두 구분, 즉 항아리 만들기와 조형작업의 분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도자공예의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왜냐하면 공예란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써 쓰임새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진경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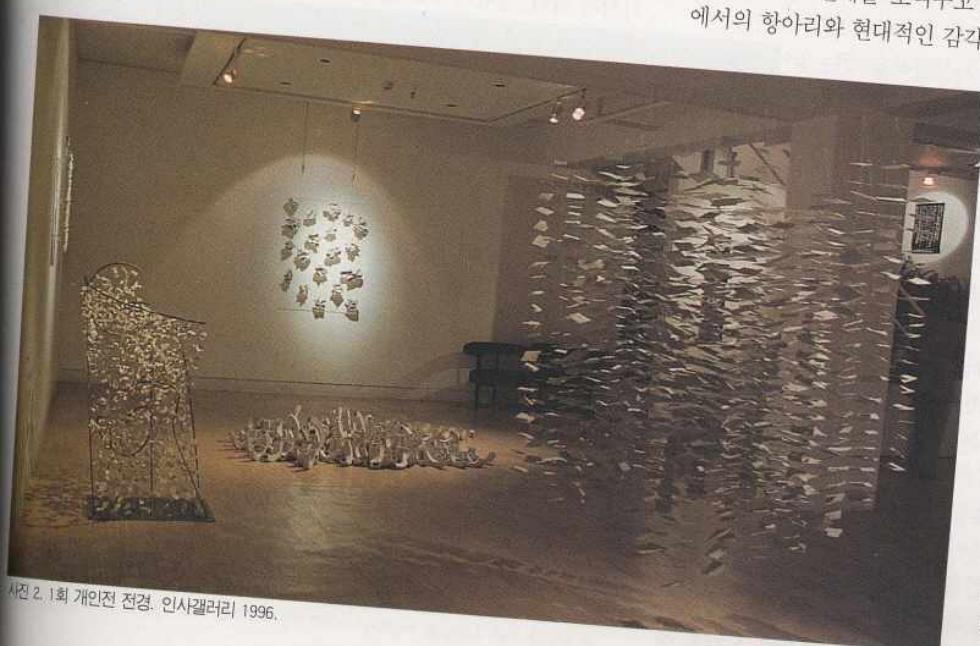


사진 2. 1회 개인전 전경. 인사갤러리 1996.



사진4. 「Netting Clay」, 1997.

나름의 해답을 찾고 있다. 그것은 손으로 일일이 엮어서 만든 옷이라는 공예적요소와 입을 수 없는 감상의 요소로써 두영역을 한꺼번에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인간의 상징을 '옷'이라고 보았다. 또한 '옷'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재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김숙경씨는 그의 실험적인 성향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많은 공예가들은 자신들이 공예가다운 작업을 해야한다는 숙제 아닌 숙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한다. 반면 화가들은 자신이 화가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예가 현대 예술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단면이다. 김진경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공예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대예술의 속성인 새로운 시도로 우리 감성을 동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공예라는 편협함에서 뛰어나와 개성적 사고방식을 갖는 일에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흙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탈바꿈시킴으로써 도자같지 않은 도자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실험적 성향이지 강렬히 반영

미 유학시절 혼합재 접목 자신의 세계 전개

그의 작업은 초기에서부터 다분히 실험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시절, 선 (Line)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건축현장의 골재들이나 뼈대의 모양을 눈여겨 보았다. 계획적으로 배열된 기둥들이 모여 큰 덩어리를 지탱하는 것을 보며 작업에 응용하기도 했다.

가느다란 흙가래들(선, Line)을 이용해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공간을 유지하며 쌓아 올라가는 작업이었는데 가마안에서 주저앉는 등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처럼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흙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커졌지만 그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

였고, 그 이후에 시도한 것이 타재료와 접목한 작업들이다.

김진경씨가 혼합재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유학시절부터인데 그것은 작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용접기술에

흥미를 갖고, 주로 금속재료와 흙의 접목을 시도했으며 이외에도 나무, 천, 깃털, 아크릴, 거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갔다. 그는 작업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가 미국 유학시절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곤 했다. 장작가마 소성이나 학부생들의 락쿠소성에도 자원봉사하며 함께 작업했다. 또한 대학원생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해결했다. 결국 자신에게는 산경험과 지식이 되었고, 그러한 작업태도가 현재의 프로적인 기질을 다지게한 원동력이 됐다고 보아진다.

도에가 김진경. 그는 이달 중순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년 정도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미국현대미술의 흐름과 도예의 영역(가칭)」에 대한 논문의 자료수집과 연구를 할 계획이며, 작품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가 쓰려는 논문은 학위나 출판 등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그저 작업의 연장선이며, 표현영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말한다.

2년뒤, 그가 미국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작업을 우리에게 선보일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벌써부터 적잖은 기대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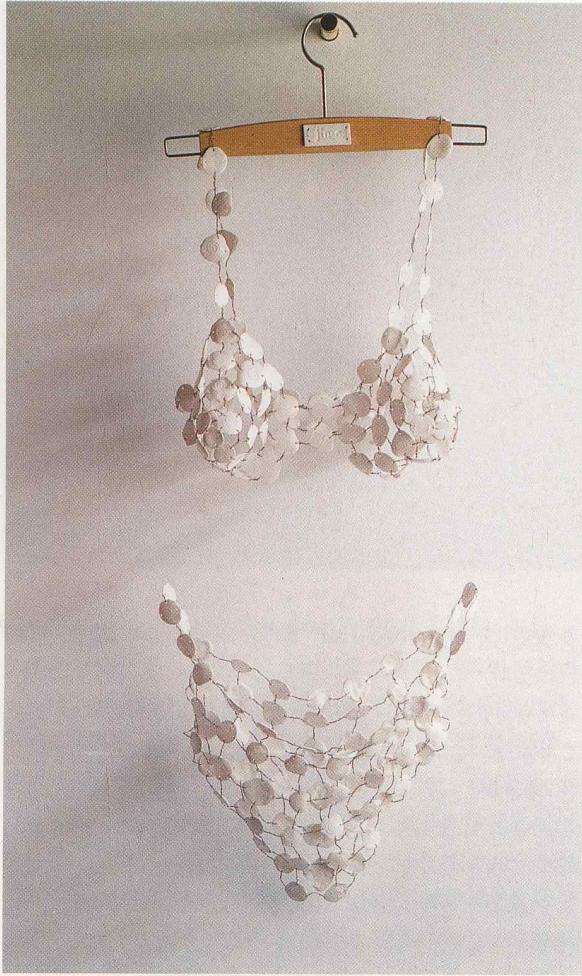
손문수기자

김진경 Kim Jin-Kyung

이미지의 언어 Language as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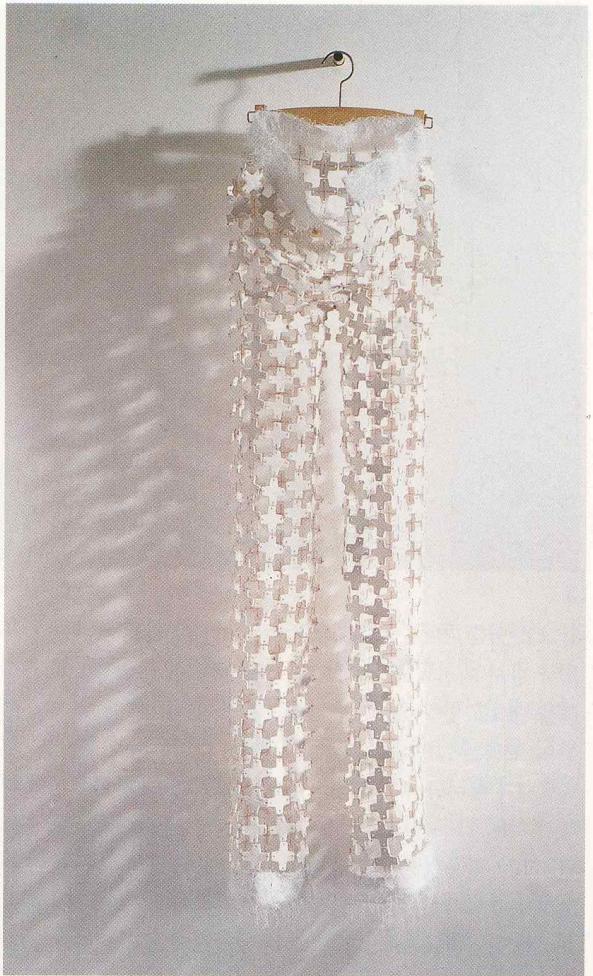
김숙경 / 미술평론가
Text by Kim Sook-Kyung /

97. 11. 19 – 11. 25 / 조성



1

흙으로 빚어진 김진경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편견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우리는 그의 작업을 통해서 도예라는 장르가 금 굿고 있었던 합계를 구경하게 된다. 즉 도예의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항아리와 현대적인 감각에서의 조형작업이다. 물론 여기에서 조형이란 과거에 비례와 규칙을 중요시 했던 수 치로써의 조형이 아니라 추상에서와 같이 암축된 의미 또는 내면의 속성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써의 조형을 말한다. 이러한 두 구분, 즉 항아리 만들기와 조형작업의 분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도자공예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왜냐하면 공예가들은 공예란 손으로 만들어진 물



2

건으로써 쓰임새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진경은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손으로 일일이 엮어서 만든 옷이라는 공예의 요소와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감상의 요소로써 두 영역을 한꺼번에 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옷」이었을까? 현대공예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써 옷이라는 사물이 다른 것보다 더 유용한 것 이었을까? 그러나 이만한 해답 쯤이야 다른 사물에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옷이라는 이미지가 가져다 주는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성격이 「옷」이라는 개

체를 선택하게 된 동기다. 이미지란 새롭게 만드는 사물을 보는 시각을 진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진가의 사물을 보는 방식의 반영이며, 예술작품이 재구성된다. 그러나 모두 통하여 사물을 보는 방식 해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의한 것이다. 즉 이미지이며, 반대로 시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옷」이 되게 된다. 그것은 흔히 입 생경스러움에서 출발한 라는 사물 앞에 새삼스럽게 분칠을 하고 뺏뺏하는 상일지도 모른다. 공허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 는 이 시대의 모든 이를 어나오는 여성이라는 성

대개가 여성문제라고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사회에 대형 자유와 평등, 개인의 권리가 있지만, 이들에게 주 부드러운 말씨, 공손함과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며 여성은 여기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김진경은 여성의 옷을 통하여 중을 두고 있다. 하얗게 언뜻 보기기에 자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위하는 것 뼛게 마무리된 셔츠와 바



4



어진 작은 조각들은 십자형이나 코일형인데, 김조각들을 엮어서 옷을 지어냈다. 즉 옷을 지어는 공예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가 우선하고 싶었던 것은 작품을 통해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보다 공예라는 성질과 있다는 것이다. 장식적인 것에 관심이 쏠리거나 있다고 본다. 자신들이 공예가다운 작업을 해야한다는 스스로에게 부과한다. 반면 화기들은 자신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예가 현

대예술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단면이다. 김진경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공예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대예술의 속성인 새로운 시도로 우리의 감성을 동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공예라는 편협함에서 뛰어나와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는 일에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흙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탈바꿈시킴으로써 도자같지 않은 도자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미술이 전개된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추상미술이 인간의식을 담을 수 있는 영속적인 형식의 하나라는 사실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미술의 포용력은 희망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반면 력은 환영의 완벽성이 아니라 이미지의 강렬함에 각각의 표현방법에는 각각의 입장이 있다. 다시 든 구상이든 그것은 표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지없는 이 말은 우리 도예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술 현실에서 추상에 목을 빼고 있기는 도예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지만, 예술이란 개인과 세계의 재자임을 되새긴다면 더욱 더 다양한 방법이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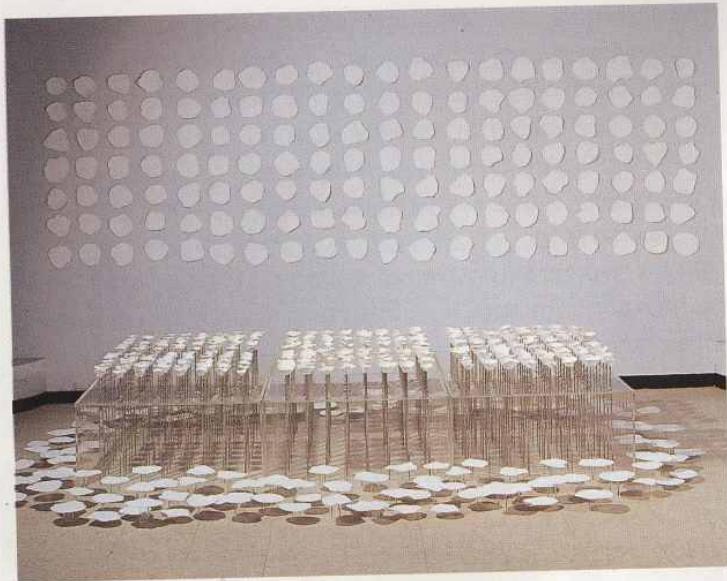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김진경은 나름의 방법을 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는 공간과 공간의 구성을 통구성에 힘입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옷」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공예다운 면모와 장주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장이나 성격을 불어 넣은 것은 아니다. 그는 단을 지어내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들어서 어떤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생동성 같은 것 말이다. ■

1. 「네팅 클레이」, 'Netting Clay'
porcelain, glaze, copper wire, 1290 °C

2. 「네팅 클레이」, 'Netting Clay'
porcelain, glaze, copper wire, cloth, 1290 °C

3. 「네팅 클레이」, 'Netting Clay'
cloth, porcelain, 1290 °C

4. 전시전경
Exhibition View



고예
New Frontier New Challenge

김진경

